

梅泉 黃玑의 懷人詩에 드러난 현실 인식

박종훈*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매천 회인시의 대상 인물과 특징
- III. 당대 현실 인식과 대응 양상
 - 1. 현실 인식과 隱居에 대한 시선
 - 2.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양상 소개
 - 3. 당대의 문학 논쟁
- IV. 나가는 말

〈국문초록〉

梅泉 黃玑(1855 ~ 1910)은 1900년 자신과 교유하고 있는 20인을 대상으로 20首의 「歲暮懷人諸作」이란 작품을 남겼다. 조선후기 지속적으로 창작된 연작 회인시는 七言絶句나 五言六句가 대부분이었는데, 매천은 五言古詩라는 다소 파격적인 詩體를 적극 활용했다. 짧게는 14구에서 길게는 42구에 이른다. 고시라는 자유로운 형식을 활용한 것은 대상인물의 삶을 상세하게 담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이전 회인시는 대상인물과 자신의 교유 정황 혹은 그들과의 교유에 대한 설렘과 바람이 주된 내용이었다. 반면 매천은 이에서 벗어나 당대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상인물의 특징적인 일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매천의 회인시에는 당대 혼란한 사회상이 담겨 있다. 매천이 소개한 인물들은 대부분 당대 현실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불우지사의 일면이 강하다. 매천은 회인시를 통해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다양한 현실 대응 양상을 소개했다.

* 단국대학교

은거 생활하는 인물을 적극 詩化했는데, 그들의 은거가 현실 사회의 구조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현실을 개탄했고 더불어 자신의 은거 열망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에 대한 반발로 중국 망명을 꿈꾸었던 김택영, 민비시해와 단발령에 격분하여 의병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홍건, 유학의 전통을 고수하며 외세의 맞서려 했던 박문호, 현실을 냉철히 비판하고 개혁을 과감하게 주장했던 이기 등을 소개했다. 이들의 행동은 모두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대 사회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매천은 시단을 통해 당대 많은 문인들과 수창했다. 그 과정에서 상이한 문학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정황을 회인시에 담았다. 이정직과 왕사찬 관련 작품에서 그들의 문학론을 소개했고 그들과의 문학 논쟁을 언급한 것 역시 매천의 회인시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핵심어 : 黃玿, 懷人詩, 金澤榮, 洪楙, 朴文鎬, 李沂, 李定稷, 梅泉詩派

I. 들어가는 말

‘懷人詩’란 말 그대로 대상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한 시작품이다. 거의 대부분의 한시작가들이 산발적으로나마 ‘회인’을 주제로 한 작품을 남겼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러 회인시는 연작화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조선후기 회인시의 연작화는 楚亭 朴齊家(1750~1805)에게서 시작되었다. 박제가는 청나라 王士禎(1634~1711)과 蔣士銓(1725~1785)의 회인시를 본떠 「戲倣王漁洋歲暮懷人」 60수와 「懷人詩仿蔣心餘」 50수, 「續懷人詩」 18수 등 총 128수의 회인시를 창작했다. 이후 金正喜(1786~1856) 「仿懷人詩體, 歷敍舊聞, 轉寄和舶大板浪華間諸名勝, 當有知之者。」 10수, 趙熙龍(1789~1866) 「懷人絕句」 22수, 徐有英(1801~1874)

「懷人詩」 33수, 李尙迪(1804 ~ 1865) 「懷人詩」·「續懷人詩」 85수, 趙冕鎬(1804 ~ 1887) 「懷人絕句」 26수, 李裕元(1814 ~ 1888) 「懷長老仿古人體」 19수, 南秉哲(1817 ~ 1863) 「懷人詩」 32수, 金奭準(1831 ~ 1915) 「紅藥樓懷人詩錄」·「紅藥樓續懷人詩錄」 200수 등 지속적으로 연작 회인시가 창작되었다.¹⁾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梅泉 黃玟(1855 ~ 1910)은 개항이나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경장, 이후 을사조약의 혼란한 시기를 살았던 인물로 국문학사뿐만 아니라 湖南詩派에 있어서도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이 그의 『梅泉野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²⁾ 또한 조선후기 연작 회인시의 경향을 그대로 이은 「歲暮懷人諸作」 20首를 남겼다.³⁾ 「세모회인제작」은 1900년 세모에 지은 것으로, 五言古詩의 형식으로 총 20人を 대상인물로 했다.

매천에 대한 연구 성과는 대단히 축적되어 있다. 그의 생애나 憂國詩에 대한 연구는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매천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 성과가 있는데, 전라남도 구례를 중심으로 조직된 시회를 ‘梅泉詩派’로 규정하고 시문을 통해 교유했던 인물을 소개한 논의가 있었으며⁴⁾ 그들과의 교유의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⁵⁾ 그러나 매천의 「세모회인제작」에 대해서는 매천 관련 논문에서 간단히 언급하거나 교유했던 대상인물과 관련해 짧게 소개한 수준에 그쳐, 「세모회인제작」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매천의 교유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대상인물과의 개인적인 교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들과의 교유

1) 조선후기 연작 회인시의 경향과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한영규의 「19세기 회인시의 양상과 조희룡의 회인절구」(『반교어문연구』 6권, 반교어문학회, 1995.) 및 박종훈의 「楚亭 朴齊家 詩 研究」(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14-216쪽.

2) 황현 지음 / 임형택 외 옮김, 『譯註 梅泉野錄』 상·하(문학과지성사, 2005.) 참조.

3) 黃玟의 「庚子稿」(『梅泉集』 권3)에 실려 있다. 본고에서는 『梅泉集』(한국고전번역원, 2010.)의 번역을 참조했다.

4)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景仁文化社, 2007.

5) 윤경희, 「黃玟 詩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황수정, 「梅泉 黃玟 交遊詩 研究」, 『고시가연구』 1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에 대한 의미부여나 당대 현실을 바라보는 매천의 의식을 밝히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매천의 「세모회인제작」20首를 대상으로 그들의 교유 양상뿐만 아니라, 대상인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혼란했던 당시의 모습과 이에 대처했던 당대 지식인의 현실 대응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문학 논쟁의 일단을 살펴 활발하게 진행된 당대 시단의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매천의 일반적인 교유시와 변별되는 회인시만의 의미를 규명하고 조선후기 회인시류에서의 시사적 위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매천 교유시의 외연과 내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당대 현실을 바라보는 매천의 시선을 좀 더 명료하게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⁶⁾

II. 매천 회인시의 대상 인물과 특징

매천은 「세모회인제작」20수에서 자신과 교유했던 20人을 五言古詩의 형식으로 소개했는데 대상인물을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인 물	생 물	비 고	인 물	생 물	비 고
金澤榮	1850 ~ 1927	5言 14句	吳翰應	? ~ ?	5言 20句
李建初	? ~ ?	5言 14句	成蕙永	1844 ~ ?	5言 28句
呂圭亨	1848 ~ 1921	5言 16句	李定稷	1841 ~ 1910	5言 24句
鄭萬朝	1858 ~ 1936	5言 14句	李 沂	1848 ~ 1909	5言 22句
李建昇	1857 ~ 1924	5言 20句	柳濟陽	1846 ~ 1922	5言 16句
洪 榑	? ~ 1902	5言 38句	王師瓚	1846 ~ 1912	5言 36句
李源兢	1849 ~ ?	5言 16句	尹鍾均	1861 ~ 1941	5言 32句

6) 본고는 매천의 회인시를 조선후기 연작 회인시의 맥락 속에서 살핀 것임을 밝혀둔다.

白樂倫	?~?	5言 24句	尹秉綬	1850~?	5言 30句
李聖烈	1865~1906	5言 22句	宋泰會	1872~1941	5言 34句
朴文鎬	1846~1918	5言 14句	擎月大師 惠勤	?~?	5言 42句

매천과 가장 활발하게 교유했던 인물 중 李建昌(1852~1898)이 「세모 회인제작」에는 빠져 있다. 이는 「세모회인제작」이 1900년에 지은 것이기에 고인이 된 이견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유제양, 왕소찬, 이기, 윤종균 등은 전라남도 구례를 중심으로 교유했던 인물이다. 이밖에 이정직은 전북, 박문호와 백낙운은 충청도, 정만조와 이견승은 서울, 김택영은 개성, 성혜영은 경남 하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매천이 전국 각지의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유했음을 알 수 있다.

매천은 11세에 광양에서 구례로 유학 와 川社 王錫輔(1816~1868)에게서 수학한 바 있는데, 왕석보의 셋째 아들이 바로 왕사찬이다. 매천과 왕사찬 두 사람은 구례를 중심으로 1900년 ‘南湖雅集’이라는 시회를 결성한 바 있다.⁷⁾ 두 사람의 시를 함께 엮은 『小川梅泉集』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두 사람의 우애를 확인할 수 있다.⁸⁾ 이견승은 이견창의 동생이며, 성혜영과 정만조는 姜瑋(1820~1884)의 제자이다. 이처럼 매천의 회인시에 보이는 인물들은 대체로 비슷한 학문적 경향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학문 및 문학 활동을 영위했던 사람들이다.

매천 회인시의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五言古詩의 형식을 자유롭게 활용했다는 점이다. 짧게는 14구에서 길게는 42구에 이른다. 조선후기 연작 회인시의 시발점에 있는 朴齊家は 王士禎과 將士鎡의 회인시를 모방하여 七言絶句·五言六句의 회인시를 남겼다. 이후 대부분의 연작 회인시는 七言絶句·五言六句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⁹⁾ 그러나 매천의 경우, 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五言古詩의 형

7) 김정환, 앞의 책, 52-53쪽.

8) 윤경희, 앞 논문, 13-14쪽.

식을 취했다.

그렇다면 매천이 오언고시의 다소 자유로운 형식을 사용한 의도는 무엇인가? 기존의 연작 회인시가 짧은 시형 속에서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통해 대상인물의 특징적 일면만을 부각시켰다면, 매천의 경우에는 대상인물의 삶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기에 절제된 형식보다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古詩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후기 연작 회인시의 형식적인 흐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다소 자유로운 고시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조선후기 연작 회인시의 대략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교유 정황이 주를 이룬다. 또한 대부분 不遇之士의 일면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知音임을 자부하는 내용이 많다. 반면 매천 회인시의 경우, 설렘이나 교유에 대한 바람보다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앞선다. 대상인물의 삶을 다소 자유로운 고시의 형식을 통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단지 대상인물의 행적만을 소개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매천 회인시의 특징 중 하나는 대상인물을 소개하면서 당대 현실을 함께 작품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당대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는 살아가는 대상인물의 삶을 한 편의 시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즉, 당대 현실이 작품 속에 그대로 개입된 것이, 이전 연작 회인시와 다른 매천 회인시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매천 회인시의 내용적 특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9) 박종훈, 「楚亭 朴齊家 詩 研究」(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15쪽.

Ⅲ. 당대 현실 인식과 대응 양상

1. 현실 인식과 隱居에 대한 시선

매천이 「세모회인제작」을 지은 것은 1900년이다. 1876년 개항과 동학 농민운동, 1894년 갑오경장,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 혼란한 시기가 연이어졌다. 매천은 자신의 회인시에서 혼란한 시기를 살았던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不遇之士의 일면을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한 비통한 심사를 토로했다.

재주가 많으면서도 겸손하기로
 그대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순식간에 종이 백 장을 써 가며
 두 손으로 쓰지 못함 한하였지.
 술에 취해 큰 눈을 번쩍 뜨고서
 온 무리 서글프게 꾸짖었네.
 사자가 잠시 한가하지만
 일어서면 사람들 놀라게 하리라.
 세상은 인재 찾기가 급한데
 이 사람이 어찌 버림을 받았나.
 풍진 세상에서 이십년을 살면서
 해진 모자에 마른 말을 타네.
 참으로 운명이 곤궁한 탓이겠지만
 또한 알아주는 사람도 적었네.
 양강에 선대의 집 있노니
 종남산 아래 살 필요 있나.

才多欲其少
 有否如君者
 頃刻掃百紙
 恨不雙手寫
 酒酣閃大眼
 萬彙困悲咤
 獅子暫時閒
 奮驤使人怕
 世方急才俊
 此君胡見捨
 黃塵二十年
 弊帽從羸馬
 端應命途窮
 亦非知者寡
 楊江有先廬
 何必終南下¹⁰⁾

荷亭 呂圭亨 관련 작품으로 재주 많은 사람이 쓰이지 못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불우지사의 일면을 담았다. 3구의 “순식간에 종이 백 장을 썼다.”는 것은 1886년 申箕善(1851~1909)의 逆獄을 심문할 때, 여규형이

10) 「歲暮懷人諸作」 ‘呂荷亭圭亨’

問郎으로 있으면서 신기선의 빠른 대답을 번개 같은 솜씨로 받아 적은 일을 가리킨다. 여규형은 1884년 익산으로, 1893년 금갑도로, 1894년 초도에 유배된 적이 있다.¹¹⁾ 5,6구는 여규형이 1893년 금갑도로 유배 간 상황과 관련된다. 1893년 萬壽節 잔치가 대궐에서 끝난 후 임금이 閔泳達(1859~?)의 집에 음식을 하사했다. 여규형도 거기에 참여하여 “술은 회수 같고 고기는 산과 같다.[有酒如淮肉似山]”란 내용의 紀恩詩를 지었다. 이후 임금이 민영달의 집에서 시회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시축을 가져오라 하여 보다가, 여규형의 시를 가리키며, “나를 桀紂에 견주었다.”고 한바 있다. 이 일로 인해 금갑도로 유배 간 것이다.¹²⁾ 9,10구 역시 뛰어난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고 유배를 보낸 현실에 대한 개탄이다. 마지막 구의 ‘양강’은 경기도 양평 근처의 남한강을 말하고 ‘종남산’은 서울의 남산을 말한다. 어지러운 벼슬길에 있지 말고 은거하여 유유자적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

매천의 회인시에는 불우지사의 일면이 거의 모든 대상인물에게서 보인다. 비록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시대 상황과 어떻게 결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래 보이는 몇몇 인물의 경우, 그들의 불우가 시세의 흐름과 적지 않은 연관을 갖는다.

丹農 李建初 관련 작품에서는 “홀로 남명의 사책을 끌어안고 계산의 달을 보며 길이 휘파람 불었지.[獨抱南明史, 長嘯桂山月.]”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명사’는 명나라가 망한 후 명나라 왕실의 계통을 잇는 여러 왕이 華中과 華南에서 淸나라에 저항하며 漢族의 부흥 운동을 꾀했던 일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계산’은 명나라 마지막 왕인 永明王이 도망쳐 숨어 살다가 죽은 곳이다. 결국 이 구절은 외세의 침략이나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로 보아, 조선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견초가 스스로 인지했음을 언급한 대목이라 하겠다.

11) 여규형의 생애에 대해서는 박영미의 「荷亭 呂圭亨 문학 일고찰」(『한문학논집』21집, 근역한문학회, 2003) 참조.

12) 여규형이 유배를 가게 된 정황에 대해서는 『譯註 梅泉野錄』상, 329-330쪽.

茂亭 鄭萬朝는 을미사변 관련 八月逆變과 十月誣獄에 연루되어 1895년 진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¹³⁾ 매천은 정만조의 유배를 중국의 劉禹錫과 柳宗元 및 蘇軾의 유배에 견주면서, 부정한 세상과 부당한 처사를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배 간 상황까지 작품에서 언급했다.¹⁴⁾ 혼란한 현실 속에서 불우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을 작품 속에 담아냈는데, 그들의 불우한 처지를 그대로 詩化한 것은 현실에 대한 매천의 부정적인 시선이 자라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천은 아예 念菴 尹秉綬 관련 작품에서는 “이놈의 세상 참으로 개탄스럽다.[人竄足感慨]”라 하면서 비통한 심사를 여과 없이 토로했다.

혼란한 시기, 교유했던 사람들이 모두 낙척한 처지가 되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없었던 매천은 산림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벗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유유자적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은거는 아니었다. 이 은거의 배경에는 혼란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천은 은거 생활을 하는 벗들을 그리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前略)...

은은한 그 모습 특별도 하여
荷蕢의 무리가 아닐까 싶네.
그대가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은거하려는 뜻 드디어 이루었다네.
아직도 그때의 나그네는
풍류 즐기던 곳을 돌아다보네.
눈앞에 있는 종남산은
십년 세월에도 검푸르구나.

隱隱眉宇奇
疑非荷蕢類
子寧終欺我
始副棲遯志
猶然舊時客
回首風流地
眼前終南山
十年黯蒼翠

13) 정만조의 생애와 유배생활에 대해서는 김미경의 「珍島 流配文化의 一考察-蘇齋 盧守愼과 茂亭 鄭萬朝를 中心으로-」(『한국도서연구』18집, 한국도서학회, 2006)와 『譯註 梅泉野錄』상, 498-499쪽.

14) 「歲暮懷人諸作」‘鄭茂亭萬朝’ “播柳不可說，瓊雷杳何許。窮海國西南，天入彈丸嶼。新制嚴逐臣，未曾許陸處。陰陰蜃蜃鄉，累累冠裳侶。一別已五螢，淚向碧波渚。舉杜倚秋風，耿耿胷中語。聖主恩如海，終是玉成汝。”

이놈의 세상 참으로 개탄스러우니
어찌 한 몸의 영체에만 그치랴.
애달프다, 몸 위에 걸친 도롱이가
나라 걱정 눈물에 몇 번이나 젖었던가.

人寔足感慨
豈止身榮悴
可憐身上蓑
幾沾憂國淚¹⁵⁾

念菴 尹秉綬 관련 작품이다. 윤병수는 1888년 丙科에 급제한 이후 右洗馬, 侍講院弼善, 副修撰, 工曹參議 등의 직책을 역임하면서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돌연 벼슬을 버리고 은거 생활에 들어간 것이다. 매천은 혼란한 시대를 등지고 살아간 은자 荷蕢에 윤병수를 견주었다. 이어 “그대가 어이 나를 속이겠는가.”라 언급했는데, 이는 매천이 평소 윤병수가 어지러운 현 정세에서 벗어나 은거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처럼 마침내 윤병수가 은거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은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다소 강경한 어조로 “이놈이 세상 참으로 개탄스러우니, 어찌 한 몸의 영체에만 그치랴.”라 하면서 현 정세에 대한 불안감과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은거하는 생활 속에서도 나랏일의 걱정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역시 윤병수의 은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이나 어지러운 국내 정세와 맞물려 있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매천의 회인시에는 불우지사로 은거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인물이 적지 않다. 耕齋 李建昇이 낙향하여 고기를 낚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유유자적한 산림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견승이 자술했듯이, 어지러운 시대를 등지고자 함이었다.¹⁶⁾ 晦堂 李聖烈 관련 작품에서는 은거 생활을 하면서도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성렬의 마음을 漆室

15) 「歲暮懷人諸作」 ‘尹念菴秉綬’

16) 「歲暮懷人諸作」 ‘李耕齋建昇’ “死者已九原, 生者又千里. 亂離成契濶, 居然各暮齒. 嵇呂不可少, 命駕何能爾. 上年一相見, 送我東浦水. 水邊三尺磯, 映日游鱗紫. 自言還鄉後, 日來治綸餌. 聊復送窮愁, 詎爲烹鮮美. 今年書又來, 細筆猶及此. 臨風寄長歎, 君豈漁釣子. 魚自任君釣, 莫釣傳書鯉.”

의 근심¹⁷⁾에 비유했다.¹⁸⁾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성렬은 여주로 낙향하여 의병을 일으켜 구국 운동을 전개했으며 의병운동이 실패하자 탄식하며 자결했다. 南坡 成蕙永은 바닷가 집에 은거하면서 농사일을 하지만, 농사일 역시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論語』에 보이는 長沮와 桀溺처럼 함께 은둔하고자하는 소망을 담았다.¹⁹⁾ 이러한 바람은 개인적인 처세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이라는 배경을 감안한다면, 어찌해 볼 수 없는 혼란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

매천이 자신의 회인사에서 불우지사의 벗을 언급한 것은 불우한 처지에 놓인 그들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비탄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 뒤에 도사리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혼란한 시대를 담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매천은 시대를 등지고 살아가는 벗들을 적극적으로 詩化하였고 그들과 함께 은거하며 살아가기를 열망했다. 시대와 정세를 바라보는 매천의 복잡하고 다단했던 심사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매천이 구례의 雲鳥樓에서 시를 읊조리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二山 柳濟陽의 삶을 부러워한 것은²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²¹⁾

17)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칠실이란 읍(邑)에 과년한 처녀가 자신이 시집가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임금은 늙고 태자가 어린 것을 걱정하여 기둥에 기대어 울자, 이웃집 부인이 비웃으며 “이는 노나라 대부가 할 근심이니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 하였다. 이에 처녀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나라에 난리가 나서 군신과 부자가 치욕을 당하면 부녀들이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라 했다. 이는 한미한 신분으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비유한 말로 쓰인다.

18) 「歲暮懷人諸作」 ‘李晦堂聖烈’ “十三通五經, 十五通賓客. 十七謁明主, 十八早通籍. 二十專城居, 鬼神驚發摘. 風雲二十三, 射破金門策. 驕驪一騰驤, 前無萬馬跡. 一朝賦遂初, 蕭然鎖巷陌. 油燈夜鈔禮, 露朱朝點易. 金篋自刮眼, 洞視殊今昔. 年齡不須問, 丰采尙白皙. 可忘漆室憂, 懷哉北山役. 滄洲不可久, 九重方側席.”

19) 「歲暮懷人諸作」 ‘成南坡蕙永’ “嶺南有一士, 字蘭名曰蕙. 物芳悲歲晚, 楚水秋香細. 四海姜古歡, 千秋得高弟. 二字情與恨, 妙悟傳眞諦. 參之最上乘, 圓通日千偈. 自從哭師後, 獨向人間世. 符載未買山, 羅隱初下第. 酒肆三十春, 歷落紹裘弊. 歸歟且安適, 海上柴門閉. 捲却扶搖志, 姑就飽煖計. 濛濛渚田雨, 植藜課樹藝. 豈眞躬耕樂, 聊且遣佗僚. 逝將從君隱, 共敦沮溺契. 寄語城市子, 莫謾譌叢桂.”

20) 「歲暮懷人諸作」 ‘柳二山濟陽’ “門內雙白鶴, 門外兩行柳. 抱郭溪如練, 屐痕明沙厚. 應有往來人, 日看塘心藕. 借問人何如, 惱閒催皓首. 常尋有花園, 不飲無客酒. 唐詩寫

불우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불우한 상황을 묘사한 매천은 그들의 불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정세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불우한 처지에서 비롯된 은거의 삶을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소개했는데, 이 역시 시대 상황이 그 배경에 놓여 있다. 매천은 이를 통해 국내외의 현 상황을 넉넉히 제시하면서 개인적인 비통함을 드러낸 것이다.

2.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양상 소개

세상을 등지고 은거 생활을 하는 삶을 부러운 시선으로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갈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살피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의병운동을 일으키거나 낙향하여 후학을 위해 정진하며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유교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매천의 회인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살필 수 있다.

문장은 진귀한 보석 같아서	文章類珍瑰
아무 눈에나 띄는 것이 아니라네.	不許魚目識
세상 사람들은 양자운이	世見楊子雲
늘그막에 창 잡은 것만 보았지.	白首終執戟
뉘 알았으리, 천 년 지난 뒤에	誰知千載下
『태현경』이 『주역』과 맞먹을 줄.	太玄能配易
神崧에 상서로운 새가 있는데	神崧有祥禽
그 깃털이 오색을 갖추었다네.	毛羽具五色
천하에는 가을바람만 쓸쓸하여	四海秋蕭瑟
대나무 열매 얻지 못했어라.	竹實不可得
높이 날다가 굽어 한 번 쪼았다가	飛飛俛一啄
마침내 그물에 걸리고 말았구나.	竟爲羅者獲
부럽구나, 주나라 언덕의 오동나무여	羨彼周岡梧
봄바람이 왕국에 가득했으니.	春風滿王國 ²²⁾

小本，一篇長在手。滿壁佳山水，臥游終吾壽。我每見之驚，問否於古有。”

21) 유제양의 생애와 시세계에 대해서는 김정환의 「二山 柳濟陽의 漢詩 考察」(『영남학』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소, 2006) 참조.

滄江 金澤榮 관련 작품으로, 때를 만나지 못한 슬픔을 읊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김택영의 문장을 漢나라 揚雄에 견주었다. 양웅은 학문이 깊었지만 벼슬하지 못했는데 늘그막에 黃門侍郎으로서 執戟하는 보잘 것없는 관직에 머물렀다. 또한 그가 지은 『태현경』은 당시 향아리 뚜껑으로 쓰였는데, 훗날 『주역』과 대등한 서적으로 평가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김택영의 文才가 당대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음을 밝힌 대목이다.

7구의 ‘神崧’은 김택영이 살고 있었던 개성을 가리킨다. 이어 김택영을 봉황에 비유했다. 10구의 ‘竹實’이란 봉황이 쪼아 먹는다는 대나무 열매를 말한다. 결국 김택영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다. 13,14구 역시 김택영을 봉황에 비유한 대목이다. 봉황은 벽오동나무에만 내려앉는다는 말이 있는데, ‘주나라 언덕의 오동나무’란 당시 淸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택영은 청나라를 부러워하다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청나라에 망명한 바 있다.

김택영이 청나라로 망명을 결심한 것은 時局을 근심한 데서 연유한다.²³⁾ 그러나 고국의 미래를 위해 독립투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김택영은 특수한 여건을 가진 개성출신으로, 조선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항상 중국의 문물을 동경하며 옛 성현들을 흠모하는 慕華의식이 고착화 되어 있었다. 그의 모화의식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청나라로의 망명이다. 이는 夷의 침입에 대한 華로의 귀의라는 유교적 절의의 명분하에, 당시에 처했던 사회적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망명을 결행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조가 붕괴되자 1912년 중화민국에 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⁴⁾ 또한 김택영은 망명 이전에 쓴 시에서도 개성의 史蹟과 遺民意識을 읊조렸고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킨 이들을 작품화하였

22) 「歲暮懷人諸作」 ‘金滄江澤榮’

23) 許敬震·郭美善, 「金澤榮의 중국에서의 學術活動에 대하여」(『동방한문학』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참조.

24) 鄭載喆, 「金澤榮의 文學論과 作品世界」(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40-141쪽.

다. 이 역시 조선에 대한 저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²⁵⁾

매천의 회인시는 1900년에 지어진 것이고 김택영이 망명한 것은 1905년의 일이다. 매천은 김택영이 평소 중국을 사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그대로 詩化한 것이다. 이는 조선에 대한 김택영의 인식뿐만 아니라, 華夷에 대한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김택영을 통해 당시 혼란했던 시기를 살았던 지식인의 인식과 그 대응 양상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매천은 회인사에서 의병활동을 했던 南史 洪楗을 소개한 바 있다. 어떠한 연유로 홍건과 교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홍건을 통해 당시 사회의 정황과 그 대응 양상의 일단 및 매천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홍건 관련 회인시는 38구의 긴 작품인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사는 온 몸 속의 피를	壯士一腔血
스스로 흘리며 마실 수도 있다네.	自瀝可自敵
자신의 시체를 찢든 씹든 상관 앓으니	任人裂尸啖
누가 다시 널과 운사를 기다리랴.	誰復待棺窆
국가가 무소와 범을 길러	國家豢兕虎
하루아침에 으르렁거리며 울 부렸네.	一朝嗾齧柙
아! 갑오년과 을미년에	噫吁甲乙交
하늘까지 물 차올라 수문 터졌네.	滔天河決閘
만고에 슬픈 長秋宮 사건에	萬古長秋慟
다급하여 옷 여밀 틈도 없었네.	倉黃枉未扱
머리 깎으라는 거짓 조칙이 내려오니	矯誣剃頭勅
우레 같은 강압에 휩쓸렸네.	波靡雷霆壓
인재를 기른 지 오백년인데	菁莪五百年
난리에 선비가 어찌 부족하랴.	臨亂士何乏
장군은 방패 손잡이에 먹을 가니	將軍盾鼻墨
역적을 토벌하자는 차자가 서릿발 쏘네.	霜飛討逆筈
한 번 창도하니 온 호서가 호응하여	一唱全湖喁
성을 굳게 지킴에 판삽을 잡았었지.	嚴城仗版鍤
외로운 충성은 유지하기 힘이 드니	孤忠難自恃

25) 黃載文, 「金澤榮 詩에 나타난 遺民意識」(『한국한시연구』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참조.

소인을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되네.	小人不可狎
송의의 군막에서 결판이 나기도 전에	未決宋義帳
도리어 진양의 군대를 엮어 넣었네.	反絰晉陽甲
한밤에 하늘을 찌르던 칼날이	夜半衝霄鋌
칼집 속에서 중간에 꺾이였다.	中折蛟龍匣
길가에서 통곡하며 전송하니	沿途哭相送
쇠사슬에 묶여 참담히 멀리 압송되었네.	銀鑿慘遠押
소인배들 그래도 공론이 두려워	羣兒懼公議
죽이려다 칼을 도로 집어넣었네.	垂劊刀還插
성공과 실패로 일을 논하라	事寧成敗論
그의 의리는 우주가 좁을 정도였지.	義已宇宙狹
지금까지 이러한 거사가 없었다면	向來無此舉
종묘에 제사를 지내지도 못했으리.	九廟不禘祫
설 읊기고 글뚝 돌린 수고는 잊혔고	遂忘薪突勞
가을바람에 둥근 부채는 버려졌구나.	秋風棄團箑
옛날의 금복고를	舊時金僕姑
한가히 봄 강가에서 오리나 쏘네.	閒射春江鴨
제비턱을 저버렸다 탄식하지 마오	莫嗟負燕頤
그대 때문에 왕법을 알게 되었으니.	賴君識王法 ²⁶⁾

壯士로서의 홍건의 기개를 칭송하면서 작품을 시작했다. 이어 金弘集(1842~1896)이 나라의 역적이 되어 갑오경장을 주도했고 마침내 을미년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었다고 통탄했다. 9구의 ‘장추궁’은 한나라 궁정의 이름으로 황후가 거처했던 곳이다. ‘장추궁 사건’이란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말한다. 11,12구는 단발령과 관련된 언급이다. 단발령의 가짜 조칙이 내려와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을 설명한 구절이다. 이때에 홍건은 洪州의 營將으로 있었다. 단발령이 내려지자 홍건은 관찰사인 李勝宇²⁷⁾를 협박하여 단발령을 거부할 것을 주장하면서 고을의 군사를 모집하여 홍주성을 굳게 지켰다.²⁸⁾ 그러한 정황을 15구~18구에 기록했다.

26) 「歲暮懷人諸作」 「洪南史榘」

27) 『騎驪隨筆』(국사편찬위원회, 1955)의 金福漢·李悞·李世永·安炳瓚·李根周·蔡光默 등 관련 작품에 이승우 관련 일화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이승우의 배반으로 인해 홍건은 官軍에 사로잡혔다. 20구의 ‘소인’이란 바로 이승우를 가리킨다. 이승우는 홍건 등 의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을 사람들을 강제로 삭발했다고 한다. 홍건이 義學를 성공하지 못한 정황이 21구~24구에 보인다. 이 일로 인해 홍건은 서울로 압송되어 갔다. 31,32구에서는 홍건의 이러한 의거가 없었다면 종묘사직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홍건을 칭송했다. 이는 홍건에 대한 칭송뿐만 아니라, 의병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매천의 시대인식과 그 대응 양상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위 작품은 당시의 혼란한 상황과 의병을 일으켰던 홍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의병을 일으키는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지만, 유교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인물을 詩化하여 현실에 대응하는 지식인의 일면을 소개하기도 했다.

瓠山 朴文鎬는 유학자이면서 문장가로, 유학의 전통을 굳건히 지키면서 민란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고자 했다. 유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인식하여 전통 유학을 고수하며 『七書詳說』등과 같은 經傳 관련 많은 책을 저술했다.²⁹⁾ 매천은 이러한 박문호의 의식과 직접 懷仁에서 강학하던 모습을 회인시에 담았다.³⁰⁾ 혼란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학을 내세우고 전통 유학을 고수하려는 박문호의 의식과 행동이 당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매천도 여겼기에 회인시에서 이를 적극 시화한 것이다.

…(前略)…

빛나는 칼집 속의 칼로

熊熊匣中劍

28) 홍건의 활동에 대해서는 『譯註 梅泉野錄』상, 참조.

29) 박문호의 생애와 경전에 대한 논의는 申耀翰의 「壺山 朴文鎬의 古文論 研究」(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와 이점수의 「壺山 朴文鎬의 經學 說에 대한 제1고찰 『論語』」(『범한철학』56집, 범한철학회논문집, 2010) 참조.

30) 「歲暮懷人諸作」‘朴瓠山文鎬’ “一舉偶不第，一臥堅不出。拭目頹波中，許君爲俊物。峩峩麗澤堂，危冠竦佔畢。十室懷仁縣，境隘絃誦溢。咄哉世愈下，狡童罵儒術。悵望百年前，輪帛賁蓬華。何如仲長統，風雅任滅裂。”

兕虎같은 역적을 치려고 했네.	思一剗兕虎
웃으며 병아리 같은 도적 머리를 베고	笑割雛盜首
저며서 씹고 포를 뜨려고 했지.	聶之啖作脯
최근 「田制妄言」을 지어서	近著妄言書
굽혀 申商의 반열에 나갔네.	屈就申商伍
늘그막에 벼슬 하나 얻었으나	歲暮得一官
관직 벗어 던지고 밟아버렸네.	脫帽踏作土 ³¹⁾
...(後略)...	

海鶴 李沂와 관련된 작품이다. 작품의 앞부분에서 매천은 이기의 실천적 경세가의 모습을 칭송한 바 있다. 이어 다소 격양된 어조로 나라를 망친 역적을 죽이고자 하는 이기의 기개를 드러냈다. 실제 이기는 조선중기 실학자인 礪溪 柳馨遠(1622~1673)과 조선후기 실학자인 茶山 丁若鏞(1762~1826)의 정신을 이어받아 토지개혁을 통한 사회개혁론을 꿈꾸었다. 그러다가 갑오년 민란을 一新의 계기로 삼아, 全瑋準에게 달려가서 정부를 뒤엎고 간악한 무리를 죽이자고 제의했다. 전봉준은 이를 쾌히 승낙했으나 金開南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정황이 회인시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기의 실천적 경세가의 일면은 「전제망언」에도 드러나는데 매천 역시 회인사에서 이를 언급했다. 「전제망언」은 1895년에 지은 것으로 토지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이기의 토지개혁론은 稅制와 軍政의 개혁을 통해 농민층을 해방시키고 立憲君主制를 도입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自強獨立을 이루자는 것이 주된 골격이다.³²⁾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려는 경세가의 일면을 작품에 담았다.³³⁾

31) 「歲暮懷人諸作」 ‘李海鶴沂’

32) 이기의 「전제망언」에 대해서는 李度亨의 「海鶴 李沂의 政治思想研究」(『동방학지』 3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참조.

33) 실제 이기의 초기 농촌의 현실을 읊은 시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농민의 참상을 목도하고 그 정황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가감 없이 드러냈는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전제망언」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기

매천 회인시의 대상인물이 인식한 현실의 모습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인식한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은 각기 달랐다. 망명을 꿈꾼 김택영, 의병에 적극 참여한 홍건, 유학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박문호, 실천적 경세가인 이기 등을 통해 다양한 현실 대응 양상을 소개했다.

기존 매천의 교유시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교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대상인물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에 대응하는 행동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세모회인제작」에서는 개인적인 교유정보보다는 대상인물의 현실대응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당대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그 대응 양상뿐 만 아니라, 그들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매천의 의식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다.

3. 당대의 문학 논쟁

앞서 언급했듯이, 매천의 회인시에는 시문으로 교유했던 인물이 적지 않다. ‘南湖雅集’이란 시회를 결성하여 당대 여러 문인과 교유했는데, 특히 石亭 李定稷과의 문학 논쟁은 주목할 만하다.

...(前略)...

정밀하게 연구하니 밤에도 눈동자 빛났고	研精夜眸炯
게으름 경계하며 새벽에도 등 꼳꼳했네.	警惰晨背竦
끓주린 울화 태워도 마르지 않고	飢火焦不涸
근원의 샘에서 끊임없이 용솨았네.	沛然源泉涌
몇 치 안 되는 『燕石稿』를	數寸燕石稿
진귀한 한 쌍의 보배로 받들었네.	自珍雙璧拱
정신을 전하는 것 옛 사람의 기쁨이요	傳神古人喜
바다를 바라봄 우리의 두려움일세.	望洋吾輩恐 ³⁴⁾

...(後略)...

의 시풍에 대해서는 朴鍾赫의 「海鶴 李沂의 現實認識에 대한 文學的 對應」(『한문 교육연구』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89) 참조.

34) 「歲暮懷人諸作」 ‘李石亭定稷’

인용한 구절은 이정직 관련 회인시의 11구~18구이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이정직의 끊임없는 독서열을 칭송하면서 마치 하늘이 옹호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격찬했다. 이어 1895년 이정직이 구례로 매천을 찾아 왔던 사실을 밝혔다.

『연석고』는 이정직의 문집인 『燕石山房稿』를 말한다.³⁵⁾ 매천은 『연석산방고』에 대해 ‘歐陽修와 曾鞏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배우기가 쉬워서가 아니라 본성에 가까웠기 때문이다.’라 평한 바 있다.³⁶⁾ 이는 인용한 작품에는 보이는 ‘傳神’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전신’이란 바로 이정직이 주장했던 法古의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1895년 이정직이 매천을 방문한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문학론을 개진한 바 있다. 이정직은 法古를 강조했는데, 매천은 법고를 반대하고 創新을 주장하는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정직은 법고를 통해야만 自家之詩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盛唐의 李白과 杜甫를 법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두보의 七言律詩를 集大成이라고 평가했다.³⁷⁾ 이에 반해 매천은 이정직이 스스로 법에 얽매어 자신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옛 사람의 문장을 답습해서는 안 되고 나름의 개성에 따라 스스로 터득한 법에 의해 문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⁸⁾

35) 이정직의 문집과 관련해 『燕石山房稿 未定文稿 別集』은 주목할 만하다. 이정직은 1865년 관직이 없는 야인으로 중국에 가는 사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때 중국에서 동서양의 문물을 보고 동서사상을 절충하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모색했다. 이후 중국 시문학에 대한 고증과 평론, 程朱學과 陽明學에 대한 해설과 논평, 그리고 서양의 Kants나 Bacon 등 서양철학의 학설을 소개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燕石山房稿 未定文稿 別集』에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吳鍾逸의 「實學思想의 近代的 轉移-石亭 李定稷의 경우-」(『한국학보』35집, 일지사, 1984) 참조.

36) 黃玟, 「韻海內存知己天涯若比鄰十字, 寄壽石亭老友」(『梅泉集』권3) “燕石山房稿, 歐曾亦我師. 本是性相近, 豈容學以爲. 希音入耳淡, 上藥收功遲. 慕古詞易馴, 創新意難奇. 拈毫裴徊, 尺紙鬢成絲. 世無九方眼, 誰辨牝與驪. 莫道知者少, 初不求人知.”

37) 李定稷, 「海鶴詩集序」(『海鶴遺稿』) “杜甫之七言律, 集大成也.” 황수정의 「梅泉 黃玟 交遊詩 研究」(『고시가연구』1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364쪽 재인용.

38) 매천과 이정직의 문학 논쟁에 대해서는 기대완(2005)의 「梅泉 黃玟과 石亭 李定稷의 문학 논쟁」(『한문학보』13집, 우리한문학회, 2005)과 황수정의 앞 논문,

법고와 창신은 매천과 이정직 두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문학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미해결의 과제였다. 매천과 이정직의 문학론에 대한 논쟁을 통해 한 개인의 미학적 취향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 지속된 미학논쟁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을 매천의 회인시에서 거칠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前略)…

처음에는 다들까 두려워하였는데	始若怕爭長
글을 지어 서로 주고받았지.	辭命稍報聘
둔마가 천리마를 우리러 보다가	駑駘仰駮耳
마침내 한참 뒤쳐져 있음 깨달았네.	終覺後矣瞠
가장 좋은 것은 굶주리면서도	最是枵腹中
의기가 구름처럼 일어난 것일세.	如雲意氣盛
언제나 거친 입담으로 얘기 나눌 때는	每當劇談時
분격하여 수염이 더욱 꼳꼳했지.	奮來髯逾勁
혀를 차며 晩宋을 꾸짖었고	啾嘈訶晩宋
넉넉한 아름다움 長慶에 견줄 만하네.	瞻婉肩長慶
이제야 곤궁해진 후에 공교로워짐 알았노니	始信窮益工
어찌 가난을 병이라고 헐뜯을 수 있으랴.	敢訾貧是病 ³⁹⁾

…(後略)…

小川 王師瓚 관련 작품으로 왕사찬의 시풍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매천은 왕사찬을 영남 우도의 성혜영, 호남 우도의 이정직과 함께 남방 삼대 시인으로 칭송한 바 있다.⁴⁰⁾ ‘처음에는 다들까 두려웠다.’는 것은 매천과 왕사찬의 문학에 대한 관점이 서로 상이했음을 의미한다. 이어 매천은 왕사찬의 시가 晩宋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白居易와 元稹만큼 우수하고 곤궁해진 이후에 시가 공교로워진 孟郊와 賈島에 견주었다. 왕사찬은 唐詩

362-365쪽 및 윤경희의 앞 논문, 70-82쪽 참조.

39) 「歲暮懷人諸作」 「王小川師瓚」

40) 黃玹, 「壽王小川六十歲序」(『梅泉全集』권2,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近日南方之詩, 於嶺右推成南坡, 湖右推石亭, 其稱鼎足而駸駸欲執耳者. 吾鄉有王小川先生, 蓋風流弘長, 一時詞林之望也.”

에 기반을 두었고 매천은 宋詩에 기반을 두었기에, 둘 사이의 논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매천과 왕사찬 두 사람 사이의 당송논쟁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⁴¹⁾ 송시와 당시 사이의 문학 논쟁이 구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사실이다. 이를 통해 당시 호남시단의 흐름을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매천은 시단을 통해 당대 많은 문인들과 수창했다. 그 과정에서 상이한 문학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회인시에 담았다. 법고와 창신, 당시와 송시에 대한 논의는 이 시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논의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회인시에 언급한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려는 매천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살핀, 어지러운 현실에 대한 다양한 대응 양상을 소개한 것과 동례로 이해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매천의 회인시에는 당대 혼란한 사회상이 담겨 있고,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다양한 현실 대응 양상이 소개 되어 있다. 은거 생활하는 인물을 적극 詩化했는데, 그들의 은거가 현실 사회의 구조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현실을 개탄했고 더불어 자신의 은거 열망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에 대한 반발로 중국 망명을 꿈꾸었던 김택영, 민비시해와 단발령에 격분하여 의병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홍건, 유학의 전통을 고수하며 외세의 맞서려 했던 박문호, 현실을 냉철히 비판하고 개혁을 과감하게 주장했던 이기 등을 소개했다. 이들의 행

41) 황수정은 앞 논문에서 매천과 왕사찬의 문학 논쟁의 일단을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동은 모두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대 사회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매천은 시단을 통해 당대 많은 문인들과 수창했다. 그 과정에서 상이한 문학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정황을 회인시에 담았다. 이정직과 왕사찬 관련 작품에서 그들의 문학론을 소개했고 그들과의 문학 논쟁을 언급한 것 역시 매천의 회인시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조선후기 지속적으로 창작된 연작 회인시는 七言絶句나 五言六句가 대부분이었는데, 매천은 五言古詩라는 다소 과격적인 詩體를 적극 활용했다. 짧게는 14구에서 길게는 42구에 이른다. 고시라는 자유로운 형식을 활용한 것은 대상인물의 삶을 상세하게 담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이전 회인시는 대상인물과 자신의 교유 정황, 혹은 그들과의 교유에 대한 설렘과 바람이 주된 내용이었다. 반면 매천은 이에서 벗어나 대상인물의 특징적인 삶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의도가 있었기에 고시라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회인시류의 작품과 변별되는 매천만의 독특한 점이다.

기존 매천의 일반 교유시에 대한 논의는 대상인물과 매천의 개인적인 교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인적인 교유관계를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세모회인제작」20수에서는 개인적인 교유보다는 대상인물이 살아가는 현실에 더 무게감을 두었다. 대상인물과의 개인적인 교유 정황을 뛰어넘어, 대내외적으로 혼란했던 당시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다. 이를 통해 어려운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다양한 대응양상을 적극적으로 담아낸 것이 매천의 일반 교유시와 차별되는 「세모회인제작」20수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단순히 당대 인물을 소개하려는 의도보다는 당대 현실을 명확히 진단하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도에서 매천은 「세모회인제작」을 지은 것을 보인다. 매천의 「세모회인제작」은 당대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의 행적을 집중적이고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이기에 매천의 여타의 교유시 및 조선후기 연작

회인시류의 작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매천의 회인시에 소개된 윤중균의 「歲暮懷人五十五絶」(『酉堂詩稿』)이나 유제양의 「歲暮懷人」11首·「歲暮有懷諸人之作」13首·「不見而知歲暮有懷諸人之作」2首(『二山詩稿』) 등과 서로 비교하여 검토한다면, 호남 문인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양상 및 호남 문단의 흐름과 문학 논쟁의 일단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후기 연작 회인시의 전반적인 경향과 견주어 살펴보면, 매천 회인시의 시사적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宋相燾, 『騎驪隨筆』, 국사편찬위원회.
- 黃玹, 『梅泉全集』,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 黃玹, 『梅泉集』, 민족문화추진회.
- 황현 지음/임정기 옮김, 『매천집』1, 한국고전번역원, 2010.
- 황현 지음/박헌순 옮김, 『매천집』2, 한국고전번역원, 2010.
- 황현 지음/권경열 옮김, 『매천집』3, 한국고전번역원, 2010.
- 황현 지음/임형택 외 옮김, 『譯註 梅泉野錄』상·하, 문학과지성사, 2005.
-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景仁文化社, 2007, 52-53쪽.
- 기태완, 「梅泉 黃玹과 石亭 李定稷의 문학 논쟁」, 『한문학보』13집, 우리한문학회, 2005.
- 김미경, 「珍島 流配文化의 一考察-蘇齋 盧守愼과 茂亭 鄭萬朝를 中心으로-」, 『한국도서연구』18집, 한국도서학회, 2006, 498-499쪽.
- 김정환, 「二山 柳濟陽의 漢詩 考察」, 『영남학』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소, 2006.
- 박영미, 「荷亭 呂圭亨 문학 일고찰」, 『한문학논집』21집, 근역한문학회, 2003.
- 朴鍾赫, 「海鶴 李沂의 現實認識에 대한 文學的 對應」, 『한문교육연구』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89.
- 박종훈, 「楚亭 朴齊家 詩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14-216쪽.
- 申耀翰, 「壺山 朴文鎬의 古文論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吳鍾逸, 「實學思想의 近代의 轉移-石亭 李定稷의 경우-」, 『한국학보』35집, 일지사, 1984.
- 윤경희, 「黃玹 詩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3-14

쪽, 70-82쪽.

李度亨, 「海鶴 李沂의 政治思想研究」, 『동방학지』3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이점수, 「壺山 朴文鎬의 經學 說에 대한 제1고찰 『論語』」, 『범한철학』 56집, 범한철학회논문집, 2010.

鄭載喆, 「金澤榮의 文學論과 作品世界」,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40-141쪽.

한영규, 「19세기 회인시의 양상과 조희룡의 회인절구」, 『반교어문연구』 6권, 반교어문학회, 1995.

許敬震·郭美善, 「金澤榮의 중국에서의 學術活動에 대하여」, 『동방한문학』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황수정, 「梅泉 黃玹 交遊詩 研究」, 『고시가연구』1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364-365쪽.

黃載文, 「金澤榮 詩에 나타난 遺民意識」, 『한국한시연구』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투고일 : 2011년 6월 29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A study on Heoinsi of Maechun Hwang Hyeon

Park, Chong-hoon

Maechun Hwang Hyeon(1855 ~ 1910) bequeathed semoheoingegak of 20 works. This works were he wrote on 20 people the subject of poetry keep company with him at 1900. It constantly was wrote Series-poem of Heoinsi at Late Chosun Dynasty. The greater part of style was a quatrain with five or seven Chinese characters in each line. But Maechun actively applied somewhat an extreme style of writing which verses with five words to each line. This is from 14 phrase to 42 phrase. He made use of free form that verses with words to each line. It would appeared that he minutely wrote life of the subjects` postures.

A prior maechun`s heoinsi, it was principal meaning that the subjects` postures and the state of friendship, or throbber and hope about their friendship. but Maechun escaped from a prior his heoinsi, and he deals with minutely remarkable life of the subjects` postures.

Maechun`s Heoinsi was put into stormy social conditions. Maechun introduced Characters in his poem, they almost were people out of luck which didn`t win recognition at the present age. Through Maechun`s Heoinsi, he presented a great variety of countermeasure that didn`t recive recognition in those days.

He actively disclosed personages that lived dwell in retirement. but he exhibited that they cann`t choice their retirement in actually social organization. and than He

deplored actuality. In addition, he appeared a bypass that he wish retirement. He introduced characters in the poem that Kim Taekyoung who dreamed defection for China to oppose about Chosun, Hong gun who became very angry about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and an event murdering a queen, Park munho who adhered to tradition of confucianism and fight against outside influence, Lee gi who coolheadedly commented on reality and resolutely insist on reform. Their`s action is began with the belief all internal and outward cause run into danger to save a nation. So, It is in close connection with conditions of the present age.

Maechun promoted with many literary man through the poetry world. In the process, It actively went about a point of view each other different literature. He put into such a situation at Heoinsi. He introduced Lee-Jungjik and Wang- Sachan. and he reported their comments on literature. and then he covered with their argument about literature. It also a noteworthy at heoinsi of Maechun.

Key-words : Hwang Hyeon, Heoinsi, Kim Taekyoung, Hong Gun, Park Munho, Lee Gi, Lee-Jungjik, A group Maechun

